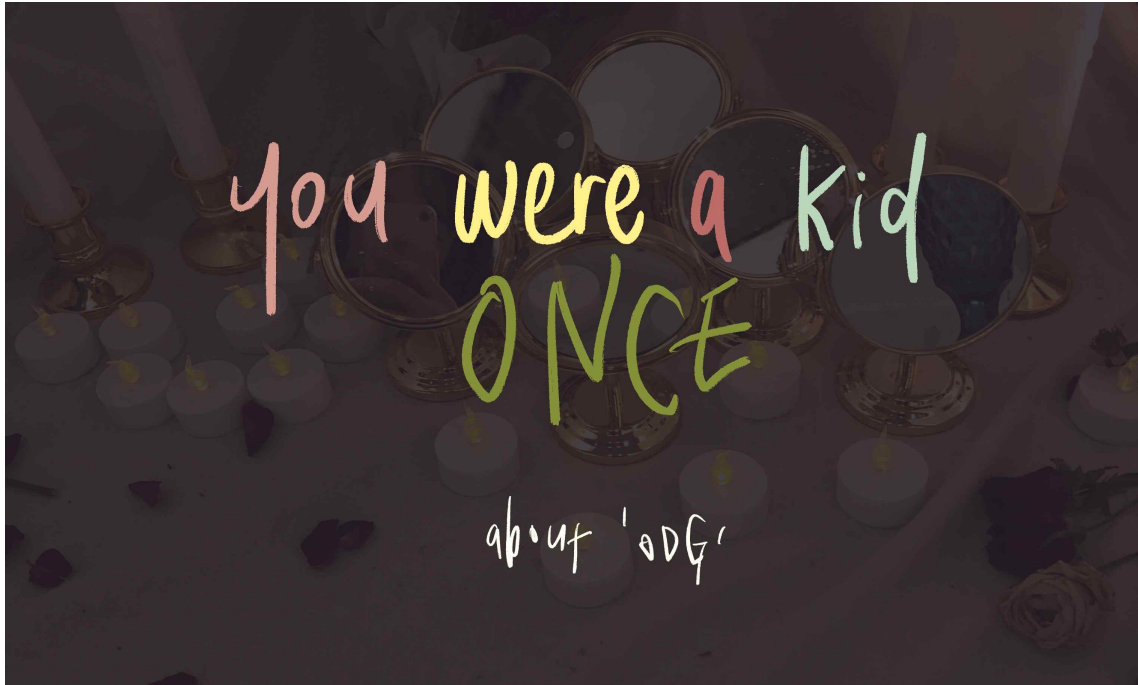




## You were a kid once

About 'ODG'

### 언제부터, 어른인가요? / 어른의 시발점.

우리는 언제부터 어른일까요. 법적으로 성인이 된 시점일까요? 아니면 혹시 20살이 되는 해의 신년? 이상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도 졸업을 했는데, 저는 아직도 제가 어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인간관계에 미숙하고, 생각했던 것만큼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있고, 결혼은 어느 먼 나라 이야기 같기도 해요. 우리는 도대체 언제부터, 어른일까요? 대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아이'가 아니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 오늘은 어느 패션 브랜드에서 제작하는 콘텐츠를 소개할까 합니다.

### ODG, 그게 뭐야?

ODG는 패션 브랜드입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디자인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개설 5개월만에 유튜브 구독자 12만 명을 돌파한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패션 브랜드의 콘텐츠, 어딘가 이상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첫 게시물 제목은 “**아이들이 말하는 죽음**”이니까요. 그들이 이 콘텐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옷도, 모자도, 브랜드의 가치도 아닙니다. “아이들, 혹은 아이들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에 있죠.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친구들과는 어떻게 친해지는지, 언제 가장 슬픈지, 이 노래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콘텐츠를 보고 나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해집니다.

### 딸과 엄마의 대화 (조회수 157만\*)

딸은 질문지에 있는 질문을 하고, 엄마는 답을 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8살 김라이와, 38살 허성경씨의 이야기입니다. 라이는 질문지를 하나씩 읽어나가며, 엄마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들은 참으로 낯설기만 합니다. 우리가 엄마에게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 질문들, 엄마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엄마는 날 낳고 잃은 게 뭐야?”** 여러분은 내 아이가 나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무슨 대답을 하실까요? 혹은, 내가 엄마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엄마는 내게 무슨 대답을 해줄까요?

<https://youtu.be/1DPCerMjB-4>

### 죽음에 대하여(김민서) 무편집 (조회수 217만\*)

ODG의 첫 콘텐츠는 바로 “아이들이 말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죽음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 중 유독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민서입니다. 민서에게 죽음이 무엇인지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는 거요? 그럼 하늘에 가서 뼈만 묻어지고 사라지겠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죠.”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곧 죽음이라고 대답한 민서. 그렇게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민서는 문득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죽으면 세상이 날 못 기억해주니까.**” 배가 고파서 죽고 싶다, 일하기 싫어서 죽겠다, 우리는 너무 쉽게 ‘죽는다’는 말을 쓰곤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민서처럼,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나요?*

<https://youtu.be/mYxbVX07D0c>

### 발라드를 눈앞에서 들은 아이들의 반응 (조회수 240만\*)

이제 곧 가수가 될 사람이라며, 아이들에게 노래를 듣고 평가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 노래가 잘 될 것 같은지, 혹은 안 될 것 같은지. 아이들은 자기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22살의 ‘삼촌’ 혹은 ‘형’을 지그시 쳐다봅니다. 노래가 끝난 뒤 아이들에게, 노래가 어떻냐고 묻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의 대답을 하는데, 좋았다고 말한 아이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노래 같다고 대답한 아이들도 모두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콘텐츠를 여러분께 추천하는 이유는 떨리는 표정으로 아이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던 사람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쳐다보며 한 음 한 음, 곱게 노래를 부르던 그 표정이 잊혀지지 않아서요. 여러분은 어딘가에 간절해본 적이 있나요? 간절했던 시절의 당신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간절한 당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있나요. 혹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신뢰와 응원을 보낸 적이 있나요?

<https://youtu.be/57uAyuNKGSQ>

### 당신이 꼭 ODG 콘텐츠를 봐야 하는 이유.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이 콘텐츠들을 만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예쁘고 순수했던 때가 있었겠지. 엄마에게 궁금한 게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누군가에게 신뢰의 눈빛을 보내던 때가.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떤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내 몫의 삶과 걸어야만 하는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다른 걸 쳐다볼 여유가 없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간절하게 무언가를 바라는 일도 점점 줄었

어요. 포기하는 일이 잦아지고요. 어쩌면 그게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꼭 ODG 콘텐츠를 봐야 하는 이유는, 이 시점에서 잊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너무 치여서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나를, 누군가를 쉽게 신뢰하지 못하는 나도. 아이였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어른이었는지, 언제부터 아이가 아니었는지 그 시작점에 대해서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모든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거니까요. 당신에게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위로를 받고 내일을 살 힘을 얻게 될테니까요. 그 긴 시간을 거쳐, 지금 여기까지 온 나를 대견하게 여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